

포항에 나노기술 집적센터 건설

산자부, 포항공대에서 6월27일 기공 ... 5년간 1104억원 투입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가 6월27일 포항공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기공식을 갖은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물은 포항시 남구 효자동(포항공대 구내)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연결하여 6440평 부지에 청정실 852평과 비청정실 2654평을 포함 연면적 3506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건축공사를 추진해 2006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조감도

신축하는 건물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실, 차세대 나노소재·재료실, 나노소재 측정·분석실 및 기반기술실, 연구실 및 행정실을 갖추고, 산·학·연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특성평가, 소자제작 지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One Stop 지원을 실시하는 나노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원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는 산업수요가 높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나노소재·재료」 분야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주관기관인 포항공과대학교를 위시한 13개의 대학과 전기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포스코 등 78개 산업체 및 경상북도 등 5개 지자체로 총 106개 기관이 참여하며, 2004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해 나노소재·재료 관련 공통·핵심 연구장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지원 인프라와 기업의 생산역량의 결합을 통한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구축단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장비사용상의 편의성 제고, 장비 사용교육, 연수기회 제공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산자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나노 융합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을 500개 이상 창출하는 등 나노기술산업 클러스터로의 육성을 통해 신소재 중심의 세계적 R&D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6/28>